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독실한 불자’ 어머니 불심 代이어

신현순 보살 50년간 충주 성덕사서 신심 다져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뒤에는 매일 새벽 당선 기원 불공을 드린 어머니 신현순(85·충주시 문화동) 보살의 불심이 있었다.

반 장관은 10월 9일 유엔 사무총장 단독 후보로 지명됐으며, 14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신현순 보살은 충주 성덕사주지 지광를 50여년 다니며 불심을 다져왔다. 신 보살은 성덕사 중창불사 때에도 가장 많은 시주를 해 중창불사를 기원하는 공덕비에 반기문 장관 이름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을 정도다.

성덕사 주지 지광 스님은 “반기문 장관 아버지 위패도 성덕사에 모셔져 있고, 지난 추석 때에 신현순 보살과 반 장관이 성덕사에 들르기도 했다”며 반기문 장관 모자의 불심을 전했다.

신현순 보살의 불심은 반기문 장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5남매 중 유일한 불자로 알려진 반 장관은 상대배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웃으며 하심이 생활화돼 부하 직원들에게 먼저 출입문을 열어주는 친절은 다반사라고 한다.

반 장관의 이 같은 겸손과 남을 위



10월 6일 반기문 장관이 어머니 신현순 보살과 함께 선친 묘소를 성묘하기 위해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삼당리 뒷방머리 마을을 찾았을 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 배려는 어머니 신현순 보살의 가르침 덕분이다.

반 장관은 어머니로부터 절대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덕을 베풀고 싶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한다.

현재 성덕사 주지에는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다.

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서울외고, 학생들에게 예배 강요

선교집회 개최... 홈페이지 항의글 삭제 물의

서울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희진)가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학내 종교자유 실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하 종자언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이하 종교자유시민연합)은 서울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외고는 지난 9월 16일 전일제

개발활동(CA) 시간에 1, 2학년 학생들을 강당에 소집해 서울 송의교회 김중호 목사의 종교집회를 가졌다.

또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사탄’ ‘미신’ ‘무교’ 등의 문구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시범이 진행되는 동안 “원죄의 결과는 죽음 뿐”이라는 내레이션까지 나왔다. 송의교회 집사로 알려진 김희진 교장은 “이 강연은 서울외고가 미션스쿨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교육을 이용한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자 학교측은 9월 20일 게시판을 전부 삭제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측에 미션스쿨 전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불교인사 초청 강연을 동등하게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보를 접수한 종자언과 종교자유시민연합은 10월 10일 서울외고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데 이어 서울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봉영 기자

‘재가불교 1번지’ 대원정사 재도약 준비끝!

남산에 100평 규모 법당 신축

22일 점안식·23일 무차법회

‘재가불교 근본도량’ ‘불교교양 대학 모태도량’ 등의 별칭을 가진 서울 남산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가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대원정사는 ‘불교중흥과 대중화’라는 故 대원(大圓)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고 과거 ‘재가불교 1번지’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법당 중창 불사 △무차법회 개최 △도량 정비사업 △장학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대원정사는 기존 법당 맞은편에 100여평 규모의 법당을 조성하고 재가신행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신축법당에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

켜 불자들의 신심을 자아내게 한다. 신축 법당에 봉안된 삼존불과 관음,地藏보살 점안법회는 10월 22일 열린다.

특히 재가불교 근본 도량 대원정사의 중창 불사 회향을 맞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무차법회를 연다.

무차법회에는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범어사 조실 지유,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前 봉화 각화사 선택 고우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 7명이 법석에 올라 감보법문을 설할 예정이다.

대원정사는 또 도량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대원정사 경내는 남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길이 가파르고 폭이 좁아 신도



재가신행 도량으로서 새롭게 도약을 시도한 서울 대원정사. 10월 22일 신축법당 낙성식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들이 불편했던 게 사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량 정비사업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말끔히 해소할 계획이다.

김범준 상임법사는 “중창 불사와 무차법회, 도량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재가 불자들의 근본 도량으

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원정사는 법회를 알차게 꾸며 나가고 신행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법사 2명을 모집하고 있다. (02)754-1613

글·사진=노병철 기자

낙산사 동종 1년만에 복원

실측자료 토대 밀랍주조공법으로...24일 타종식

지난해 4월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보물 제479호)이 1년여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첫 법음을 울린다.

낙산사와 문화재청은 10월 11일 “새로 복원된 낙산사 동종은 10월 16일 낙산사로 이운돼 10월 24일 낙산사 원통보전 기공식과 함께 타종식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된 낙산사 동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원래 동종의 탁본과 실측자료, 성분분석 등을 토대로 동종 복원의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밀랍작업과 주물성형 등 동종 복원의 본 작업은 원광사 주월장이 맡았다.

또 낙산사 동종 복원 작업에는 1

억 200만원의 예산과 20여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됐으며, 제작기간은 성분분석 등을 포함해 약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이날 타종식과 원통보전 기공식에는 낙산사 주지 정남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유흥준 문화재청장, 이진호 양양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핵실험 이후 신계사 복원·지원사업 등

“남북 불교교류 변함없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10년 넘게 진행돼 온 남북불교교류가 중단되지 않을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불교계 남북교류 단체들은 중단없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부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0월 17일 예비접촉을 갖고 11월 19일 열리는 극락전 낙성식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어린이와 농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한국JTS와 황해도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을 건립하는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도 정세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한편, 이에 앞서 조계종(10월 9일)과 종단협(10월 12일)은 논평을 내고 북 핵실험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민간종교교류가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봉영 기자

여성개발원, 지도자 워크숍


‘리더의 사명과 비전찾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0월 20-21일 코포도호텔 경주조산에서 ‘제1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21세기 불교의 희망, 여성리더의 사명과 비전 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1·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자들과 개발원 및 지원인원, 지역 불교여성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서일농원 견학을 시작으로 ‘2010 비전’ 발표, 한국종교변동 현황 분석 보고, 박광서 교수(서강대·참여 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의 강의, 그룹토론, 불국사 참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010 비전’은 △여성 불자 지도자 양성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불교여성연구소 개소 등 2010년까지 실천할 불교여성개발원의 중점 사업을 담고 있다.

여성불자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불자들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02)722-2101 여성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사무처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경북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전주지원 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4-1321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원도 강원시 포남 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054) 555-8871 FAX: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총리서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 FAX: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 FAX: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 FAX: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 FAX: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Miro: (54-11)4921-9286 / FAX: (54-11)4921-9286
- Tucumá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án, Rep. Argentina
TEL: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0)2131)969551 / FAX: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66-2)391-0091
- BRASIL (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CEP01127-000-São Paulo-Brasil
TEL: (55-11) 3337-5291